

『독서와 독서주간』

독서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독서를 귀중히 여기고 독서생활을 강조하곤 한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서 몰랐던 지식을 깨닫고, 둔화된 감정을 순화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은 우리의 가치없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도 한다.

인간생활에는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의 두 가지 면으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하여 볼 수 있는데 다함께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 어느 하나만 결여(缺如)되어도 삶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된다. 육체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양분이 필요 하듯이 정신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어 진다.

이렇게 중요한 독서를 위해서는 첫째로 독서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겠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에 주위환경 즉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독서하는 분위기가 되어질 때, 그러한 분위기를 인식하여 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도 올바른 분위기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분위기에 동화(同和)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心理)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관인들은 이러한 독서 환경의 조성에 있어서 술선을 보이는 개척자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이 마땅한줄 안다. 둘째로 독서교육을 실행해야 하겠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읽는 행동이 실천되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독서의 효과를 위해서 교과과정의 한부분으로 독서교육이 들어 가도록 현재의 학교 교육의 교과과정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계로 책을 쓰는 저자는 가능한대로 쉽게 써달라는 것이다. 책을 펴 내는데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게 써야 할 필요도 있겠으나, 어렵게 썼다고 해서 다 가치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독자들이 쉽게 책을 대할 수 있도록 저작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독서로 유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이다.

독서의 중요성과 인식을 재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독서주간」이 설정되어진 지도 어언간 23회를 보내게 되었다. 독서주간에 대하여 혹자는 독서라고 하는 것은 일년 내내 계속하는 것이지 특별한 주간을 설정하여 독서를 강조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독서주간의 무용론(無用論)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 사실인즉 독서는 계속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정한 기간에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독서주일이 설정된 동기도 그러한 의미로 세워진 것이 아닐줄로 안다. 독서는 평소 계속해야 하는 것이로되 「독서주간」을 설정하여 독서의 중요성과 의미를 재인식하며 독서가 습관화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긍지를, 독서를 하고 싶으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습관화가 되어지는 계기를, 책을 멀리 했던 사람에게는 책을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드는 기회를 갖자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이것은 마치 불(火)에 대한 조심은 평소 항상 할 것이로되, 「불조심강조기간」을 설정하여 불조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하여 본다.

이러한 의미로 독서주일이 설정되어진지가 23년이나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적극적인 독서운동이 전개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책을 귀중히 여기고 책을 보는 독서환경이 조성 되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기들의 바른 길을 스스로 찾아 가고, 독서를 통하여 사회는 명랑하게 되어지며, 독서를 통하여 질서가 국민 스스로 유지되어 지는 사회정화의 길잡이가 되어지는 날이 속히 와져야 하겠다. (蘇時重)